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John Fredriksen-backed Northern Drilling cancels second DSME rig resale

Northern Drilling은 지난 8월 인도지연과 계약 위반을 이유로 발주한 시추선을 취소한 데에 이어 같은 이유로 West Libra의 7세대 초심충수 시추선 발주도 취소함. 지난 2018년 5월 초심충수 시추선 2대를 각 2.96억달러에 계약한 바 있음. 대우조선해양에 선불로 지불한 9,000만달러에 대해 환불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도됨. (Tradewinds)

Celsius Shipping targets 20-ship LNG carrier fleet by 2025

Celsius가 삼성중공업에 180,000DWT급 LNG선 4척을 발주한 것이 확인됨. 해당 선박은 2025년 이후 연비를 +30% 더 높여야하는 IMO 요건을 충족함. 납기는 2023-2024년임. 2025년까지 LNG선 20척 보유를 목표로 한다고 보도됨. (Tradewinds)

오션얼라이언스, 물류난 대응 中-북미서안 2개 셔틀노선 출범

CMA CGM, Evergreen, Cosco, OOCL 등으로 구성된 오션얼라이언스가 중국과 북미 서안 노선을 잇는 컨테이너선 서비스를 셔틀항로로 분리함. 북미서안북부 노선은 기존 서비스 대비 1항차당 1,500TEU 늘어난 4,250TEU급 5척이 배선됨. 북미서안남부 노선은 주간 2,000TEU가량 선복이 늘어남. (코리아쉬핑가제트)

전력난 심각한 중국, '발전용' 석탄 수입 76% 급증

중국의 석탄과 철광석 수입량이 서로 엇갈리고 있음. 겨울철 수요과 전력난으로 석탄 수입 증가율이 9월 +76%로 확대됨. 반면 철강생산 감소로 철광석 수입량은 -12% 감소함. 석탄 수입처 변화로 수송거리가 늘어나며 중소형 벌크선 시황을 끌어올렸고, 철광석 수요감소는 Capesize 등 대형 벌크선 시황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도됨. (코리아쉬핑가제트)

TechnipFMC submits \$1 billion low bid in Petrobras tender for Buzios-6 subsea job

영국 TechnipFMC가 Petrobras Buzios-6 SURF 입찰에서 10.3억달러로 타사대비 낮은 입찰가를 제시함. 4개 경쟁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이탈리아 Saipem이 두 번째로 보도됨. (Upstream)

KAI, 현대중공업과 경항공모함 개발 협력 MOU 체결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현대중공업이 '한국형 경항공모함(CVX)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MOU를 체결함. (조선Biz)